

‘만민’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 느끼는 해외 인사들의 고백을 들어본다.

재창조의 권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몸이 새롭게 재창조되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 불임 부부가 잉태하고, 다운증후군의 위험에서 태아가 정상인 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연덕희 성도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청력, 시력이 좋아진 권옥화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41호 2018년 6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가득한 만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데, 만민중앙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계를 품고 계신 이재록 박사님의 비전과 영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주님의 복음이 만민중앙교회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지요.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GCN방송은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회원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자랑하며 고품격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 기독교방송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프랭크 화이트 박사 / 전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회장



“이스라엘 국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 강사 이재록 박사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은 대단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은 수년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비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내리주셨습니다.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스라엘 시의회 의원이었는데 현재는 국회의원이며 국회부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힐릭 바르 의원 / 이스라엘 국회부의장



“에볼라를 퇴치시켜 주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으나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공직에서 거듭된 승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내면 이를 거절치 않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지요.

특히 제가 에콰토르 주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저희 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박사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내 드려 기도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발병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볼라를 퇴치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의원 /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당 대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니며 이재록 박사님과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며 만민중앙교회도 잘 알고 있었지요. 이는 박사님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7년 9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왔을 때 제가 있는 곳과 플로리다의 많은 주민이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린 뒤 두려움 없이 남아 있었지요. 박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허리케인의 진로를 다른 쪽으로 틀어 소멸시켜 주셨고, 저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지극히 성경적이며 최고입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유럽의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었지요.

지극히 성경적이며 최고였습니다. 이는 이재록 박사님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양한 간증과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은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제 신앙은 한 층 뜨거워졌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알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뜨거운 소명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 류브카 탄체바 박사 /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 신경생리학자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본 만민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이재록 박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시는 권능의 목회자이심에도 매우 겸손하셨고, 다정한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박사님의 사역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민은 모든 면에서 영적이며 강력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 프란시스코 엑스포시토 목사 / 스페인 마라나타 부흥교회



재창조의 권능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3)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권능은 근본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근본의 소리를 자유롭게 운용하면 마음에 품고 소리를 발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인가

비유를 들면, ‘꽃’ 자체가 아예 없는 데서 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꽃을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시키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으며,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 ‘재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할 제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창 1:27)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은 구원받을 믿음조차 갖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 난 마음을 고쳐주며 더러워진 마음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사랑’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은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을 받기까지는 하나

님의 근본 사랑에 준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공의로 볼 때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요.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공의에 의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그 공의의 값을 치러주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지요. 이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의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공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이처럼 넓어진 공의의 범위 안에는 교계와 세계의 많은 영혼도 담기게 됩니다. 심지어 심히 패역한 이들도 그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공의가 완성되지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두려움 속에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낌으로 마음이 녹아져서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굳은 마음을 제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권능

에스겔 36장 26~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창조 권능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악으로 굳어서 단단해진 마음이라도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드러

워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보니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은데 아주 말라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뼈들과 저 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연결되는 소리가 났지요. 이어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며 다시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게 하심으로 사망에서부터 생기가 힘차게 불어와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즉시 살아나 모두 제 발로 일어나서 정렬하였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지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들, 곧 심령이 낡고 악하며 변질되고 변형되어 심히 타락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영혼들도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회복되고 정화되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에 사는 인생들이 재창조의 권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과 성령이 참임을 믿어 구원은 물론 예비하신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기에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3. 패역한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

1)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등이 당을 짓고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자신의 사명을 넘어서 제사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고생만 시킨다며 반발했지요. 이는 하나님 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시기에 심히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가족,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해졌지요(민 16:32~33). 이를 통해 그들의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큰 죄가 바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 훼방, 거역, 모독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령을 훼방, 거역, 모독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아도 자신의 악에 가리어져 그 사실을 믿지 않지요. 오히려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도 회개하여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재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 가롯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가롯 유다는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힘 있는 위치에 오르시면 자신

도 그 곁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이었지요. 돈계를 맡았던 그는 때때로 물질로써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자기 기대와는 달리 다른 길로 가시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결국 그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행 1:18). 사리사욕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하여 자신들의 땅을 팔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이 손에 쥐어지자 욕심이 생겨 그중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지요. 이에 권능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밝은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처럼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성령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성령으로서 권능을 행하는 사도 베드로였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것은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지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 결국 구원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정말 믿음이 있어 서원을 지킬 수 있

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기독교계에 이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잡기 원하십니다.

3)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지식의 틀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궁구했다면 구약에 수차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자기 지식의 틀에 갇혀 성경을 보았기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계에도 “나는 신학을 오랜 시간 연구했다.”, “내가 목회를 몇 년간 했으며,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이만큼

이다.”, “나는 신학박사요,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는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교만이 되어 임의로 판단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런 사람들의 단단한 틀을 깨뜨려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 구원의 기회를 잡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영계를 뚫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이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아노라’ 하는 이들 대부분은 영계를 뚫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지 못한 그 분량까지 대신 감당해 주므로 이런 이들도 단단한 지식의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실로 우리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만민’이란 이름답게 전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이기에 성도 여러분이 신속히 사랑의 사도로 나와 마지막 때의 섭리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불임이었는데 잉태의 축복을 받았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팔관이 막혀 임신할 수 없던 아내가 치료받아 딸을 낳는 권능을 체험한 인도 델리의 프로모드 꾸마르 성도, 몸이 너무 연약하여 임신할 수 없었으나 이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아 2남 1녀를 얻은 일본 야마가타의 최윤영 권사, 결혼 12년 만에 첫아이를 낳아 시부모님까지 전도된 장경혜 집사, 결혼 4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은 태국 치앙마이의 코손 잉콩 집사(사진 1~4).

복중(腹中)의 딸이 아들로, 아들이 딸로 바뀌었어요



미국 뉴저지의 유케리아 이준두 성도는 남동생 부부가 임신 9개월째에 딸이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 이재록 목사에게 대신 기도를 받았는데 소원대로 아들을 출산하였다. 김은숙 권사도 태중의 아기가 딸임을 알고 기도받은 뒤 아들을 출산하였다. 채미영 집사와 케냐 나이로비의 소피 아치엔 성도는 각각 임신 5개월째와 9개월째 아기가 아이였으나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해 기도받은 뒤 딸을 출산하였다(사진 1~4).

권능의 기도로 다운증후군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아를 출산했어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으로 구성돼 있으나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아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조 개에 달하는 수가 바뀌어야 한다. 이민경 집사는 임신 11주에 태아 목 투명대 검사에서 4.12 mm로 다운증후군 외 유전질환이 의심되었으나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뒤 2 mm로 줄어 정상이 되었다. 임수희 전도사와 윤성진 집사는 임신 4~5개월째 퀴드검사에서, 김혜숙 권사는 임신 16주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았으나 이 목사의 기도로 정상이 되었다(사진 1~4).



“주님께서는 23년이나 장결자였던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연덕희 성도 (50세, 2대대 14교구)

1996년, 아내를 따라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으나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 지 않았습니 다. 아내(이선영 집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병원에서 완치가 안 된다는 큰 아들 규진이의 심한 천식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지요. 숨 쉴 때마다 식식 거리는 소리가 났고 뛰지 않아도 달리기를 한 것처럼 호흡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규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완

치되어 지금은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가면 마냥 쉬고 싶었고,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아서 섬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사소한 일로도 티격태격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모든 것을 제게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소홀하고 신앙생활에만 열심 내는 것

같아 서운했는데 아내가 전과 달라지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6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작은 아들 규찬이가 선천성 마비성 사시를 치료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을 옆으로 살짝 흘겨보는 듯 해야 초점이 맞았고, 의사는 수술을 한다 해도 매우 위험할 뿐더러 치료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아 반듯하게 성장하고, 저를 섬겨주는 아내가 있는 가정의 축복 속에서도 저는 잠시 감사할 뿐 그 은혜와 사랑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상대를 도우려고 한 일이 제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던 아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사업터에서 심방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심방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3월 4

일, 저는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예배시간 내내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지요. 23년간 장결자였던 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으며 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후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등 당회장님 설교를 듣고 저서를 읽어갈수록 깊이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느낌이었고, 성도들을 품 안에 꼭 안고 가시는 당회장님, 다름 하나 없는 성도들의 화평한 모습 등 은혜가 넘쳤지요. 저는 술을 끊고 주일은 물론이고 상황이 되면 금요철야예배, 수요일예배도 참석하며 기도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칠십 평생 안 들리던 왼쪽 귀가 뽕 뚫리고 눈까지 밝아졌어요!”

권옥화 집사 (79세, 1대대 4교구)

저는 여덟 살이 되던 해에 열병을 앓은 뒤 왼쪽 귀로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후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열아홉 살에는 대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안동이 고향이라 대구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못 알아들으니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럽고 슬픈 제 인생도 소중히 보셨나 봅니다.

완전히 꽃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밝고 환한 성전에 성도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쳤지요. 주일 예배가 시작된 뒤 설교하기 위해 단에 오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보니 평온하면서도 영적인 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시는 당회장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제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얻었지요. GCN방

송을 통해 다니엘철야에도 참석하며 부족한 저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던 2018년 초, 영혼들을 위해 진액을 쏟느라 기운이 소진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당회장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시렸습니 다. 이후 당회장님의 눈을 밝게 해 주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지요. 놀랍게도 3월경, 예배 시간에 당회장님의 음성이 작은 소리까지 귀에 쫄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잘 듣고 싶어도 안 들려서 오른쪽 귀로 집중해 들어야 했는데 이날은 달랐지요. 이후에도 대화할 때나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속 시원히 잘 들렸습니다. 귀가 먹어 평생 설움 속에

살던 저를 위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마음의 소원까지 응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아니라 전에는 시력이 나빠 안경 속에 안경알 하나를 더 넣어도 작은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경알 하나를 빼고도 조그마한 글씨까지 잘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주시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히려 귀와 눈이 좋아지게 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3343-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남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곡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